

“교육발전 위한 상설기구 필요” —교과과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社說

대학의 특성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을 포함시키는 데 있다. 신학기, 특별히 금년도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다 당혹감 속에 개학을 맞게 되었음은 교양교과과정 개편이라는 어려운 작업의 마무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임을 누구나 알리라.

시대가 변하고, 학문이 크게 발전되어가는 급박한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교양교과목 일부를 변경하는 데에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전문대학이 개학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몇 년은 지속되리라 한다.

한 인재를 책임질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교과과정의 개편을 위한 상설기구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라는 것이 1~2년의 대화와 협상, 어떠한 노력으로 설정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는 교과과정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목표에 맞아야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 맞고 학문적 추이에 맞아야 한다. 셋째, 국내외 대학원 진학, 외국유학, 취업 등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한다. 즉 학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서도 대학의 본성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연구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지속적인 상설연구기구의 설치와 급선무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연구·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혜를 모아 보다 앞서는 교육의 장으로서 경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선할 일은 바랄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상설기구(자문기구도 가능) 설치하는 ‘학사’ 곧 ‘공공’이라는 신념 아래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매스미디어 문화의 새 창조” —제94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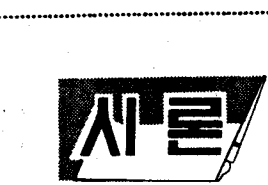
현대사회를 일컬어 매스미디어의 사회라 하며 매스미디어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구실이나 또는 그 전달의 매개가 되는 방송, 신문, 영화, 출판과 같은 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언어(말)과 문법으로서 또 우리에게 소식이나 생각을 전해주는 새로운 ‘말’이자 ‘문’이며 ‘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사상(思想)의 외상(衣裳)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은 생각을 담고 있는 언어로써 수용자의 의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 구조(音聲的 符號)’가 되어야만 진실한 그리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로써 수용자의 의식이나 감정에 대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는 무수한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메시지는 올바른 사상과

정보로써 진실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야 하며 수용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나의 자존심이 남의 자존심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의 매스미디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이상적인 의사나 사상의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명료성, 일관성이 요구되며, 둘째, 주관적이지 아닌 사회적 책임성을 지닌 공공의 이익에 입각한 원리에 우선되어야 하며, 셋째 사상과 메시지는 적기적시성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넷째 메시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공공(公衆)에게 있다. 이는 점을 인식하여 그 내용은 진실성이 있어야 하며, 끝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와 사상은 공중에 대한 계몽적,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올드미디어(Old media)에 대응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불

이 일어나고 그 수요가 계속 증대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필요성, 중대성, 편리성 못지않게 병리적, 역기능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매스미디어 문화의 재창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즉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요원의 활동을 규제하고 그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관념이나 가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즉 요원들의 지배적인 가치관, 신념, 태도, 사고방식, 의식구조의 건전성, 신뢰성, 계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핵심은 ‘말’이며 말처럼 위대한 힘은 없다는 점이다. 즉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천하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국민에게는 분발력과 용기를 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매스미디어의 국민 계몽의 전략과 매스미디어 문화의 재창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하겠다.

◆...환율인상에 따른 한국경제구조의 변화

낙관 할 수 없는 회복국면



적인 현상은 미국의 이른바 ‘쌍둥이 적자’로 불리우는 불균형, 즉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동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적자의 동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적자의 동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한국의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에 대해서 규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조와 마찰의 관계는 미·일간의 경제조정 문제로 좁혀진다. 이러한 문제와 맞물리는 구조적 환율의 변화에 대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원화절하, 물가상승·한미통상마찰등 우려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의 취약성 극복해야

각국은 마찰의 부분적 해소를 위해 각 국가의 가격변수의 변화, 즉 환율 및 금리를 조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다. 지난 3월 2일 새로 도입한 시장경쟁 환율제가 시행되자 환율의 영향은 비단 환율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의 국제 경쟁력강화, 그 결과로서 대미수출의 급증, 그리고 대미 국제수지의 흑자의 대규모화라는 현상 즉 ‘강한 일본’의 존재가 있다는 점이다.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를 기대한다

김 동 선
(교직원·학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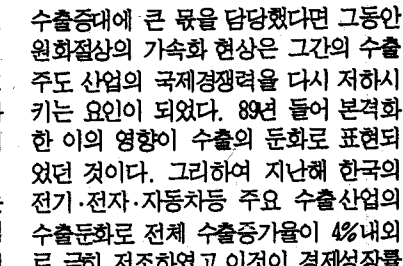
노동과 직업에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관습과 규범과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의 강의는 기본법과 구조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약속과 관습, 규범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동아리의 존재의의가 있다.

친구따라 강남가듯 동아리 선택론

친구따라 강남가듯 동아리 선택론, 동아리연합회 지도리비, 동아리 간 폐쇄성, 명목적인 지도교수, 동아리 분과별 체제 등 동아리의 체제요인들을 극복하고 동아리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며, 대학의 내적변화와 외적요인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식표출로서의 말

4월주제 ‘말(言)’



허우성
(문대교수·철학)

옛말에 하루의 설계는 새벽에 세우고 한해의 설계는 정초에 세운다는 말이 있듯이, 새해와 신학기를 맞이 하면서 실천성이 있는 계획을 잘 세운 다음 이번 학기를 실천에 잘 옮기도록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자.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요구에는 개인보다도 정부나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 같은 공적 단체가 더욱 철저하게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인행의 선조건은 완벽한 자기인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행의 선조건은 완벽한 자기인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 반면에 이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내면적 충동이 언제나 강력한 힘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을 알고 불가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언행의 불일치와 모순은 불가피하다. 둘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의 전제조건임을 염두에 두고 언행일치를 인식하고 실천의 문제다. 학제와 관련과 관계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의 하나도 다른 행동을 예상하고 요구하는 상이한 지식이나 말의 체계들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의 한계치에서 절대적 세계관과 하나의 기본모순을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의 세계관과 중립적 문제군의 존재를 시인한다면 특정한 하나의 인식체계와 실천의 일치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될까?

자기인식의 성취와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한두해로 마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언행일치란 한해의 주제가 보다는 평생의 과제일 것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이나 한 학기에 풀 수 없는 화두, 영원한 화두이다. 그런데도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언행일치라는 호언장담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자기와 세상을 안다는 착각과 기만을 내포하고 있다. 한순간에 한번에 다 이룰듯 장담하는 일체의 공언과 약속은 그것이 비록 나라부강과 민족통일을 위한 다해도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의 신여당의 공언과 총학생회의 약속도 예외일 수 없다.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족을 다는 것은 언행일치를 전제로 한 큰 소리가 세상에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봄에도 향긋한 내일을 썼을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봄소식이 오고 봄빛이 완연해지면, 들녘의 논에 우리들의 부모는 또한 벼씨를 뿌립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진실하게 생산자(生産者)의 몫을 다하는 부모들의 삶—백미(白米)를 사서에서 공부하고, 지구촌을 무대로 밤과 낮을 바쁘게 일하는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에 닿아있습니다.

산과 산, 논과 논, 밭과 밭, 골짜기...

이렇게 이땅의 곳곳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 봄에, 우리들의 땅에서 모듬알이를 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